파격 출산정책 '해피아이' 도입 순항할까

제주도, '교육+주거+교통' 빅3 지원 정책 추진
복지부 '교통' 부정적 입장에 계획 차질 가능성
도 "이달중 협의 마무리… 보완책 마련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도입을 예고한 파격 출산지원정책인 'Happy I(해피아이)' 정책의 순항 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제주도가 계획한 내년부터 2025년까지 '빅3(교육+주거+교통)' 지원 정책의 변경 및 차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해피아이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자칫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늦어질 경우 제도 시행일이 내년 1월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선 정책발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 측은 늦어도 이달 중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부서와 세부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는 등 내년 도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책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도에 따르면 앞서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빅3' 지원정책 중 전기차 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교통'지원 정책 도입 필요성과 교육적금지원(5년 만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도는 교육적금지원 정책의 경우 150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200만원씩 5년간 현금을 분할 지급(총 1000만원)하는 육아지원금으로 변경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 최종 '교통'지원 정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빅3' 지원 정책 계획에 맞춰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육아지원금(1000만원)과 주거비 지원(1400만원)이 문제없이 추진된다 해도 지원금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도 우려된다.

한편 도가 지난 3월 발표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주거비·교육비·교통비 3가지(BIG 3) 지원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5년까지 약 95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5일 열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연구원 제공

생명수 컨트롤타워 '지하수 연구센터' 개소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마련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제주연구원은 5일 연구원 내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강성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및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종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자원 종합연구센터로 원 지사의 민선 7기 중점 공약사업이다.

최근 지하수 과다 개발과 수질오염 등 지하수 위협요인 급증으로 지하수의 공공관리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연구조직 신설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2018년 실시한 '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평가' 용역에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조직 설립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월 제주연구원과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해 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하수 계획·조사·관리를 통한 수자원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의 생명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사용하고 완전하게 지켜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현재 고갈과 오염 등으로 제주의 물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주의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고 일관된 지하수 보존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개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성산일출봉 배경으로 승마 체험 5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말을 타고 해안절경을 감상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당일바리 옥돔마을' 특화사업 탄력붙는다

해수부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 승인
92억원 투입 2022년까지 옥돔명품관 조성 등 추진

'당일바리 옥돔마을' 특화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주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8일 제3차 기본계획 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서귀포시가 제출한 태흥2리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한 끝에 원안 승인 의결했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그간 지역협의체 자문회의, 해양수산부 자문회의, 마을 자체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지역여건 분석, 지역주민-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이어 왔다. 이 과정에서 태흥2리항만의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콘텐츠인 '당일바리옥돔'을 명품화하는 사업계획이 완성됐다.

서귀포시는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한 상황으로, 지난 달 25일 기본·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소형어선 계류시설·준설 등 공통사업과 함께 ▷옥돔명품관 조성 ▷옥돔역 교류센터 신축 ▷옥돔파크 수변공원 조성 ▷옥돔역 가는 길 조성(마을 안길 보행환경 조성·야간경관 조성) 등 5개 특화사업을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향후 사전 공공건축가 협의·공공디자인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추진 중인 신천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도 내달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신천항 어촌뉴딜사업은 지난 달 해양수산부 3차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농기원, 밭작물 연구단지 조성
종자 자급률 28%까지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내년부터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내 연구동 신축공사를 본격화해 제주형 밭작물 품종 개발과 무병 우량종자 생산·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는 121억원(국비 19, 도비 102)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일원에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문화재 지표조사와 재해영향평가 및 산지전용 허가, 마을설명회 등을 마쳤고, 오는 12월까지 전기와 상수도·농업용수 관련 공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토지는 전체 49필지·7만6503㎡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 가운데 32필지·6만7504㎡(88.2%)의 토지 매입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매입부지 내 연구동(1105㎡) 신축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확보 부지는 묘지와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작은 면적의 토지로 법적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월동채소 품종개발·종자생산 기반 마련 및 보급체계를 구축해 국산 종자 자급률을 현재 14%에서 2025년 2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한림종합운동장 론볼 경기장 증축공사

제주시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림종합운동장 론볼 경기장 기능 보강과 편의시설(사무실) 증축공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사업비 6억6000만원이 투입될 론볼 경기장 증축공사는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림종합운동장 론볼 경기장은 정규 규격(40×40m)이나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도 부족해 대회 개최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론볼은 잔디나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규정된 수의 볼을 '잭'이라 불리는 작은 볼에 가까이 굴리는 경기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육체 활동량이 적어 장애인과 노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다.

시는 론볼 경기장 기능 보강과 증축공사가 마무리되면 장애인과 어르신 등에게 생활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대회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코코리 입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a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라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농가: 당도를 올리기 위해 10월초부터 3~4일 간격 해피한그린 3병 + 글루칼2포를 1,000ℓ(50말)에 3번 엽면시비
양배추·브로콜리·마늘·감자·당근:
※ 파종이 늦은 농가는 잘커진액 5ℓ + 썰파고 8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찬바람이 불기전(10월 중 · 하순) 희토락F 5ℓ + 썰파고 8ℓ + V패스 4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양배추, 프로콜리는 불병 · 뿌리혹병 예방, 감자는 시들음병 예방
제품소개
■ 해피한 그린 : 희토류가 들어 있어 당 상승 효과
■ 글루칼 : 글루콘산이 99.9% 들어있는 포도당 칼슘
■ 썰파고 : 제독처리된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무름병, 흰가루병, 노균병, 탄저병, 녹병 등)
■ V패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양배추 불병, 뿌리혹병, 밑썩음병 등)
■ 잘커진액 :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만든 영양제로 흡수율이 87~88%나 되는 영양생장 촉진제
■ 희토락F : 희토류와 부식산 및 철분이 들어있는 비대촉진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